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8-30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08-30
2020 년 08 월 30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075452899](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075452899)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08 월 30 일

차례

1. [전태일 3 법입법청원운동에관하여]	3
2. [중국의제국주의야욕에반대하여]	3
3. [벨라루스민중의독재정권퇴진투쟁에관해]	4
4. [계속이어지는미국내인종차별반대시위에관해]	5

1. [전태일 3 법입법청원운동에관하여]

민주노총이하반기주요사업으로, 20 만의입법동의를거친국민입법청원을 통해전태일 3 법입법운동을진행하겠다고밝힘. 하반기에지도부선거가있는것을고려하면, 사실상하반기의유일한조직사업이입법청원운동이된것이다.

5 인미만사업장노동자들의동등한노동권을확보하는것, 특수고용/간접고용등왜곡된고용형태를가진노동자들이제대로된노동 3 권을확보하는것, 산재사고를예방하는것모두매우중요한사업임은분명하다. 하지만그토록중요한사업을, 왜입법기구에최종적인결정권을줘주려하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남는다. 민주노총이 20 만이아니라 2 천만청원서를받아와도, 그법안의세부적내용은결국그냥국회의원들의정치적거래로구성될것이기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00 만조합원을조직하고있는명실상부한국최대의노동조합이다. 그렇다면민주노총이가장큰힘을가지고있는영역은정치와입법의영역이아니라노동과산업의영역이다.

5 인미만사업장노동자들의노동권을확립하는것은지금껏민주노총이조직해내지못한 5 인미만사업장에대한집중적조직사업배치와전략적투쟁으로노동자들이” 직접” 이루어야한다.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실질적노동 3 권은사업장에서실질적사용자를대상으로한교섭과투쟁을만들어내고, 민주노총이이를묶어내는것으로만들어내야한다. 산재다발사업장에대한처벌은, 해당사업장들의공동전선과공동투쟁을만들어내어, 노동자들의손으로이루어야할것이다.

민주노총이정치와입법이라는환상에서벗어나노동자들스스로의조직, 교섭, 투쟁, 직접행동을통한사회의변혁을지향하기를바란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478>

2. [중국의제국주의야욕에반대하여]

시진핑중국국가주석 (이하시진핑) 이 29 일공산당고위급회의에서티베트에서의분열주의를퇴치하기위해더욱힘을쏟겠다고중국관영매체신화통신이밝혔다.

시진핑은특히” 모든젊은이들의가슴깊은곳에중국을사랑하는씨앗을심기 위해티베트학교에서정치·이념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다” 고밝혔다.

하지만티베트는역사적으로중국의영토였던적이없으며 1951 년무력으로인해자치구로강제합병된이후티베트의정신적, 종교적구심점인달라이라마를

암살하려는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왔다.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는 1959 년 인도로 망명해 망명 정부를 세우고 현재까지 독립 운동을 계속해 이어 오고 있다.

티베트 인민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무력으로 짓밟고 이제는 사상 탄압을 한층 심화하겠다는 시진핑의 의도는 티베트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부딪히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 전반을 누군가의 강제로 이어나갈 수 없다는 모든 이들의 연대감이 어질 것이다. 아나키스트 연대역시 이런 관점에서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고 연대가 가능한 지점들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의 방한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나키스트 연대는 시진핑의 방한역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화국이라면 독재자를 공화국에 발을 붙이게 할 수는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840911?rc=N>

3. [벨라루스 민중의 독재 정권 퇴진 투쟁에 관해]

벨라루스 민중의 루카셴카 독재 정권을 향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루카셴카 정권은 성립 이후 정치적 탄압과 검열, 사회적 통제를 통해 벨라루스 인민들의 민주화, 자유화 열망을 탄압하며 정권을 이어나갔다. 최근의 부정선거 의혹은 민중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이에 루카셴카는 즉각적으로 퇴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 작금의 루카셴카 정권은 노동자 정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소위 벨라루스 시장 사회주의라는 신기루는 부재한 노동자 민주주의와 민영화 정책에서 보이듯 자본 계급과 이에 결합한 정부 관료라는 환상일 뿐이다. 루카셴카 정권이 추진해 온 사회 복지 삭감, 은퇴 연령 상승, 노동 운동 탄압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도 민중적이지도 못한 정책이다. 루카셴카 타도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이다. 벨라루스 민중은 이를 시작으로 해방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벨라루스 민중의 투쟁을 지지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외세적 개입도 벨라루스 민중의 해방을 향한 열망을 꺾어선 안 될 것이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5958021.html

4. [계속 이어지는 미국 내 인종 차별 반대 시위에 관해]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여전히 미국에서 격화되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인종 차별 반대 시위에 맞불 시위를 놓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충돌 과정에서 총격으로 시위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은 완연히 뜨거운 이슈로서 연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인종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자본과 국가이다. 자본은 그 스스로의 증식을 위해 흑인 노예, 흑인 차별이라는 인류적 재앙을 낳았다. 국가는 그 자본의 증식에 편승하고 복무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더 많이 증식시켰으며, 이후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했다. 체제의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 이로 인해 촉발된 모든 시위와 투쟁에서, 미국 국가 권력의 수족인 경찰은 연일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아나키스트들은 해답을 내릴 수 있다. 인종 차별조차도 국가와 자본의 고리가 끊어져야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자본이 인종 차별을 낳았으며 국가가 그 인종 차별을 체제 유지를 위해 조장한다면, 결국 국가와 자본에 대한 종식이 이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미국 인민의 인종 차별에 대한 저항에 적극적 인지를 표명하며, 종래에는 자본과 국가에 대한 해방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47168?sid=104>